

한국에 있어서의 병원사목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성모병원 지도신부 이 문 주

이번 한국 가톨릭 병원회에서 학술 세미나의 주제로 “병원사목”을 설정한 것은 현 시점에서 여러가지 의의가 있을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한번쯤은 다루어볼만 하다고 보아집니다.

제게 위촉된 부제는 한국에 있어서의 “병원사목”으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제목에서는 아주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어진 제목에서는 별로 어긋난 것 같지 않은 내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풀이부터 해볼 것 같으면 그 시대의 생활상태의 정도에 따라 모든 분야의 진보의 정도가 발전적 형태를 가질과 같이 “병원사목”도 어느 시대에 들어서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진, 과정을 밟아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사목”하면 요즘에 와서, 그 용어 자체가 귀에 익숙해질 정도로 한국교회나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나온 안내서에 보면 Pastoral Counselling이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역사가 오랜 서구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Pastoral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Pastor이라는 목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목자란 테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편 작가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하고 있고(시 73.1)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당신의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며(예레 23.4) 신약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하느님 백성의 착하신 목자 이십니다. (마태 9.36).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1절—16절을 그대로 인용

하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삯군은 목자가 아니고 또한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면 곧 양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가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가 도망을 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삯군에 지나지 않아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잘 압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내게는 이 우리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양들을 데려다가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무분별하게 젖을 짜내거나 마구 털을 자르려 하지 않고 적당하게 여건을 맞춰 주므로 최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사목이 그 회의 좋은 이름들만 뽑아다 큼직한 간판을 붙여놓고 이상한 복장을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진 일에 수습이나 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 간판과 복장과는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일반 병원과 구별되지 않는 경영이라면 조금전의 복음에서 들어볼 수 있었던 “삯군은 목자가 아니고 또한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고있는 것이 눈에 띄면 곧 양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쳐 버립니다.”라는 사실을 되풀이 하는 것이며 끝내는 양의 가족을 쓴 이리”라든가 “회칠한 무덤”(마태오 23. 27—28)이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아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Counselling으로 이는 라틴어의 Consiliare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명사로 Consilium으로 소집된 회의 내지 평의회등 요즘 많이 알려진 공의회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며 영어 Counsel로 하면 협의, 조언, 충고가 Counsellor 하여 조언자, 법률, 고문, 지도교사로 널리 쓰이며 한국어로 적합한 말이 없어 그대로 Counsellor 나 Counselling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현대어로 둔갑하여 보편화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현상학적으로 보면 사단교에서는 사제(Priest) 의무(Medicine Man) 예언자(Prophet)의 세직능이 있는데 사제는 신의 의사를 탐지하여 제사의 의식으로서 그 의사를 인간에게 전한 것이며, 의무는 제물과 기도에 의하여 병자로부터 악정을 축출하는 것이며 예언자는 겉뻘로써 미래의 길흉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회람 신화나 구약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환자는 먼저 성전에 찾아와 사제(Sacerdos)에게 자기의 증세를 보이고 말하면 사제는 그 병을 낫게하기 위해서 제사와 기도를 드려주어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의술로써 고쳐줄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의술로써 고쳐야 할 것은 판관(Judex)이 의술적인 집행을 하게하여 치료한 다음 예언자(Propheta)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가 생겼을때 성전에 찾아와 사제에게 그 상처를 보이고 말을하며 조언을 듣는다는 데에 Counsellor의 구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서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병원사목에서의 Healing System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20세기에 와서 재발견 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한 환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인술 기능을 활용했다는 것은 의술이 필요했던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Pastoral Counselling에 대한 어휘적 윤곽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병원사목의 뜻을 갖고 한국에서의 자취는 어떠했던가 살펴보면

먼저 양의학이 들어 왔을때부터 국한하여 인조의 장자 소현세자가 청의 인질로 북경에 체재하

는 동안에 “주제군집”이라는 교리서의 일종으로 그 내용은 “그리이스”의 “아리스토 텔레스”철학을 주로 역술하였고 아울러 로마의 게일런(Galen)의 인체생리설을 간략하게 소개한 책의 역자인 예수회 야담 살신부와 알게되어 (인조23년) 1645년에 귀국할때 그 책을 다른 천문 수학교리서와 함께 수입해온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후 철종 10년(1859) 11월 7일 포교성성에 보면 편지검 보고서에 “금년 여름부터 큰 읍내에는 약국을 배설하여 죽게된 외인 아이들을 구제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전교사항 보고서에는 고아 양육에 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고종 19년(1882)부터 구미 각국과 통상조약을 맺게되자, 우리나라에 공사관을 설치하게되면서 그와 함께 기독교 선교회로부터 선교 의료 및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의료사업을 통한 전교에 종사 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한국 교회병원은 최초로 발을 들여 놓을때부터 의술만이 아닌 전교 즉 인간구제에 힘을 쏟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러한 교회병원이 최초의 설립목적에 비해서 어느만큼의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볼때 외형적으로 발전했을런지는 몰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점점 퇴색하여 가고 있지않나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목자에게 대부분의 자기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들을 가장 쉽게 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찮고 머리아픈”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미 국립 보건소소장 Robert Felix 박사는 사람들의 40%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성직자에게 먼저 가져간다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사목의 일반적인 직분은 영혼구제이며 그의 일차적인 의무란 종교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상담활동이란 이런 목적에 대하여 이차적이며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의 사목적 상담에 더욱 적극적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목자가 상담하는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a) 일차적인 면—직접적으로는 그의 사목적분의 완성이고

b) 이차적인 면—간접적으로는 그의 신자들을 도와서 사목적 봉사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데 있습니다.

예수회의 Bier신부는 만일 이것이 세속적 상담과 구별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 3적 요소가 되는 삼각관계로써 종교적 목적을 항상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3가지 특수한 것은

첫째로 심리치료를 하는 상담자의 풍부한 영적 능력이 있고

둘째로 피상담자가 삶의 극한에 도달했을때 그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준다.

셋째로 삶의 의의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항목들은 종교적 상담의 특성이며 그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종교적 동화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에 더 추가할 것은

1) 사목적 상담자는 인간이라는 육체와 실체인 영혼의 결합체로서 후세가 있다는 것을 알며,

2) 후세에는 하나님과의 재회가 운명지어져 있다는 것.

3) 본성을 성충으로 채우며 인간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성충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것.

4) 죄의 실존과 죄악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실을 돌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들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의사와 간호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이는 사목적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지 사목적자가 임석하는 것이 의사와 간호원만큼이나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악이 치료과정에 방해가 된다는가 특히 병이 말기에 다달았을때 의사와 간호원보다는 성직자의 임석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은 있을 만한 일입니다.

사목적자는 치료팀의 한 구성원으로 의사와 간호원의 옆에 위치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원이 그런 만큼 사목적자는 그의 역할도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실에서의 사목적 방법은?

(구실)

그들의 위치에 대한 개념은 그의 가장 최선의 역량을 말하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제시하고 표현하는가에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몹시 나빠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또한 생명이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급적인 요구를 만날때 방편을 갖고 있는 이는 치료팀 중에서 사목적자를 빼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은 비록 그가 사실들을 이야기 않는다해도 그의 지위자체가 그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사목적자라는 그 역할자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교회의 대리자인 때문입니다.

사목적자는 생에 있어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봉사합니다.

사목적자는 병자들의 손을 이끌어 지난 세기동안 찬미와 기도로써 찬양되어오는 경건한 신앙인과의 연결을 지어주므로 고통을 적게 해주고 인간의 괴로움을 덜어 줍니다.

병을 앓게 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삶에 있어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던 모든 것들은 삶 그 자체처럼 깨어지기 쉽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에 아픈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들 수 있는 회고부동한 어떤 것을 원하게 됩니다. 병을 앓게 되면 가치없는 그의 생명은 영원한 팔과 같은 것으로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이때일 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확고부동한 실제와 실망없는 경건함을 주는 것입니다.

질병이 말기에 도달해서 막다른 시간이 오게 되면 의사의 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자가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크리스찬 신앙은 의학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아가며 사목적자는 환자와 그 가족을 함께 안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주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납득시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병의 말기에 가게되면 의학이 어떻게 노력하든지 간에 그를 위하여 많은 뜨거운 기도가 드러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한 고통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며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나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 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목자의 개인적 자세)

사목자의 커다란 소망은 그리스도안에서 사람들이 주와의 관계를 이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단순히 그가 속한 집단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개성과 독특한 요구를 갖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아플때는 가치있고도 양식적인 감정을 받고자 합니다.

인간을 지도하는 사목자는 병을 치료하는 팀의 다른 구성원보다도 이 요구를 알아 내는데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하기에 사목자가 그의 치료 선교를 충실히 완수하고자 예삿때 그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위대한 전통에 대하여 뿐만아니라 인간의 질병 가운데 모든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그의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동양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병원사목이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생각해 볼때 아마도 인술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술을 가르쳐 “인을 행하는 권도의 법”이라 한다면 이를 풀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용에 보면 인은 하나의 큰 “도”입니다. 그러나 인은 의, 예, 지와 함께 단순한 덕목으로써 이기에 앞서 그 의, 예, 지를 포섭하는 성의 본질로써 하나의 실체입니다. 인(仁)은 인(人)이다라고 한 것도 인은 우선 그 문자 구조가 나타나서 바와 같이 인과(仁)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하여 하나의 교통 상태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을 가능케 해주는 그 인간성이 인(仁)입니다. 요컨대 인(仁)을 규정지어 주는 주요한 판전은 “서로 통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 “너와 나”가 상대 대립의 개체적인 존재로서의 경계를 넘어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인(仁)이 파악됩니다.

동양 의학에서 수족마비의 증세를 “不仁증”이라고 한것은 정명도가 말했듯이 그것은 인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같은 한 몸이면서 감각이 통하지 않기에 이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은 모

든 윤리의 근본이며 인의 추구는 바로 인간이 인간인 소이의 추구입니다.

이점으로 보아서 동양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병자의 치료나 성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원의 구실이라는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 환자가 아파하는 그부분만을 치료하는 것이 의술의 전부가 아니라 앓고 있는 환자 그 한 사람 전체를 다루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공통점입니다.

결론삼아 종합해보면 신약성서에서는 예수께서 환자의 병을 치료해주신다음 사제에게가서 보이고 완쾌되었다는 데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외국인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즉시 지도 신부실에 연락하고 퇴원할때도 마찬가지인 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군대에서는 새로 전입하여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Chaplain사무실이며 전속갈 때에 마지막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어느 병원에서는 새로 채용되는 사람은 누구나 원목실에 가서 인터뷰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병원사목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구실을 겸해야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횡으로 연결을 가질 수 있는 사목자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요즘은 평신도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신자든 아니든 그들이 종사하는 병원의 근본 취지를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에 속하는 일원으로써 전체의 융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행동의 총명한 관찰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의 하나는 그 자신의 동일성에 관한 어떤 명확하고 책임있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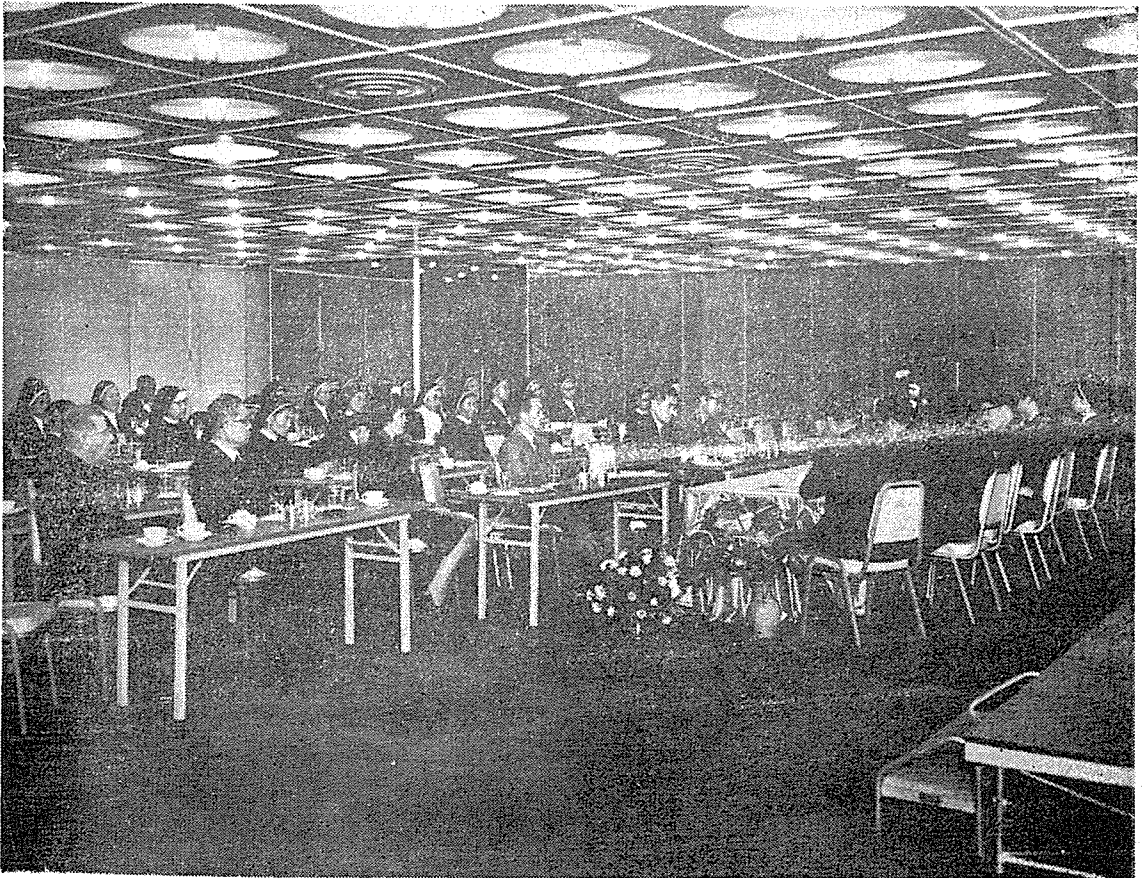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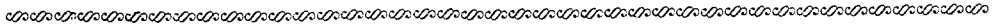
그러므로 인간이 결정해야 할 동일성의 가장 어려운 요소의 하나가 소극성과 적극성의 적절한 균형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이 필요로한 자원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도움이 가능한 기관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사회불안이 이에 많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욱 진실한 존경으로 취급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은 믿으려고도 의심하려고도 않고 그저 단순히 배려하지 않는 마음의 무관심, 병담, 완고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의 집단을 개인주의의 피난처, 책임으로부터의 후퇴 또는 사리추구와 감정 발산의 통로로써 사용하는 외에 그로하여금 미성숙의 책임없는 상태로 머물게 할뿐 그 자신이나 그가 머무는 단체 내지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도우려는 인간 개발이 되지 않

으므로 주체와 객체인 너와 나의 유대가 맺어지지 않으므로 우리와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한 사회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병원사목은 “너와 나”의 유대가 봉사적인 사업으로 사회안에 뻗어나감으로 교회 안에서의 평신자들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구원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구실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 6 차 세미나 광경